

원희룡 장관, 3일 「한-인니 비즈니스 포럼」 참석

- 인니 재무부 장관, 중앙은행 총재, 신수도청 장관 등과 네트워킹 -
- 에너지 전환·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 공유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일(수) 오전,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「한-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」에 참석하여,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(스리 므야니 인드라와티), 중앙은행 총재(페리 와르지요), 신수도청 장관(밤방 수산토노) 등과 교류하고,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·인프라 개발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이날 행사는 한-인니 양국 간 지속 가능하고 긴밀한 금융·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(대사 간디 술리스 티안토 수헤르만)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,
 - 원 장관의 축사와 함께, 인니 재무부 장관의 기조연설,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 등이 진행되었다.
- 원 장관은 축사에서 “2060년 넷제로(NZE) 달성, 에너지 전환을 통해 녹색 성장을 구현한다는 인도네시아의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,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전환, 친환경 모빌리티,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 실질적인 후속 성과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하면서,
 - “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,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원 장관 자신도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”고 덧붙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62개 기관·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단 파견(3.15~18), 한-인니 경제협력 포럼(3.24), 비즈니스 포럼(5.3)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한-인니 양국 간 교류를 이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.

2023. 5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